강진 피싱마스터스대회 마량경제 활력소로 확실한 눈도장

시마노컵 주꾸미 낚시대회 성료… 올 공식대회 마무리
경제효과 7억원… 1000억 이상 시설 투자도 기대 만발
상금 일부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해 상생 실현 '웃음꽃'

강진군이 지난달 29일, 30일 이틀간 시마노컵 주꾸미 선상낚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진피싱마스터스 시리즈 중 가을 시즌을 대표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낚시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186명이 참가하며 강진 마량항을 뜨겁게 달궜다.

이번 대회에서는 두족류 부문에서 그동안의 기록을 뛰어넘는 뛰어난 조과가 나와 더욱 화제가 됐다. 김해에서 온 모준형 씨가 이틀간 총 7.8kg을 낚으며 1위를 차지했고, 광주에서 온 최대운 씨가 7.2kg으로 2위에 올랐다. 1등에게는 상금 1,000만 원이, 2등에게는 500만 원이 전달됐다.

이번 대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접수 통계를 보면 많은 참가자가 지인 또는 가족과 함께 강진을 방문했고, 관내 숙박시설을 이용한 비율도 높았다.

특히 상금 제도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1~5위는 상금의 10%, 6~30위는 전액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비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냈다. 여기에 1,000만 원 상당의 행운상 추첨까지 진행해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호응이 컸으며, 참가자 모두가 행운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경품도 마련했다.

강진피싱마스터스는 단순한 낚시대회를 넘어 해양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의 숙박, 식음료, 관광 소비 등으로 강진 곳곳이 활기를 띠었으며, 마량항 소속 선박 10척이 출항해 안정적인 조황을 선보이며 낚시 관광지로서 강진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2025년 강진피싱마스터스는 올해 총 7개의 공식 대회를 모두 마쳤으며, 7일간 약 7,000명의 관광객과 1,235명의 참가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참가자 가운데 약 25%가 강진에서 숙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주말 이틀 대회만 보면 참가자의 60%가 현지에서 숙박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했다.

공식 대회는 종료됐지만, 12월 13일에는 '기관·단체 주꾸미 선상낚시대회'가 번외편으로 진행된다. 강진군민과 강진 향우인, 관내 기관·사회단체·동호회 소속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강진피싱마스터스 홈페이지(https://www.mastersmgm.com/)에서 참가 접수 방법이 소개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해양수산과(061-430-3543)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 피싱마스터스대회는 올해 약 7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마량면을 획기적으로 바꿀 다양한 대형 공모사업 선정돼 국·도비 합쳐서 약 1,000억 원 이상 예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영암군, 성실·모범납세자에 다양한 혜택 제공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정… 표창장·증명서 등 수여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영암군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3일 영암군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납세자 권익 보호, 성실납세 문화 확산, 지방세 자주재원 안정 확보 등을 위한 제도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제정 조례는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각 유형으로 나눠 구체적 혜택을 제공해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전액 납부한 체납·징수유예 이력이 없는 자로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된다.

모범납세자는 같은 기간 법인은 5,000만원 이상, 개인·단체는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영암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영암군은 성실납세자에게는 5만원 이내의 지역화폐 또는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고, 모범납세자에게는 군 발간 홍보물에 소개하거나 표창장·증명서 등을 수여한다.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 군 금고 금융기관 금리 우대 및 수수료 할인, 1년간 납세담보 1회 면제 등 다양한 재정·금융 혜택이 제공도 제공한다.

특히, 제도의 신뢰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범납세자가 지방세 탈루나 포탈 등을 할 경우, 선정이 즉시 취소되는 동시에 모든 지원도 중단된다.

김명선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영암군민에게 보답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해 지역 전반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했다. 다양한 우대 시책을 발굴해 지방세 성실납세자들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현판식 가져

여성·아동 안전 환경 조성, 돌봄 해소 공백 등 성과 인정

완도군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2026~2030)로 신규 지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 1일 군청 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향후 5개년 비전을 밝혔다.

현판식에는 신우철 군수, 부군수, 군의회 의원, 군민 참여단, 여성 단체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여 지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완도군의 정책 방향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그동안 군은 ▲여성·아동 안전 환경 조성 ▲돌봄 공백 해소 및 가족 지원 강화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 기반 구축 ▲군민 참여형 정책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군민 참여단의 현장 중심 협력, 군의회와 실무 부서의 정책 연계, 주민 주도형 성평등 실천 사업 운영 등 행정과 군민이 함께 만든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 친화 도시' 지정은 완도군이 그동안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이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군은 앞으로 5개년 계획에 따라 생활 안전 강화, 돌봄 확대, 여성 경제활동 기반 조성, 성평등 조직 문화 확산 등 군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특히 정책 기획 단계부터 군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누구나 배제되지 않고 존중받는 지역 문화를 만들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현판식을 계기로 여성친화도시의 가치를 군민에게 공유하고, 더 많은 군민이 정책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의미 있는 성과이다"면서 "여성뿐 아니라 아이, 어르신, 장애인 등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가족부가 지역 정책 추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역량 강화와 돌봄과 안전이 실현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5년마다 실적을 평가하여 재지정을 한다.

완도/장선우 기자

구복규 화순군수, 학부모와 함께 교육 현안 소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일(화)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화순군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부모와 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선 8기 화순군의 교육정책과 군정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학교 전반의 교육환경 개선, 학생들의 학습 활동 지원, 안전한 통학 환경 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학부모 의견을 경청한 구복규 화순군수는 "앞으로 추진될 교육정책과 관련 사업에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순군 학부모연합회 김미란 회장은 "군수님께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셔서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올해 추진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과 장학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 지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학부모와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교육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을 적극 반영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진도군, '문화관광해설사 간담회' 현장 목소리 경청

소통과 전문성으로 진도의 매력을 전하다

진도군은 지난 11월 27일(목)에 '2025년 문화관광해설사 간담회'를 열고, 해설 운영 개선과 2026년 관광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비 관련 사항 ▲2026년 신규 해설사 충원 계획 ▲화합과 소통 활성화 방안 ▲자체 보수교육 확대 등 주요 현안과 개선 사항을 공유하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진도군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해설사와의 정기적인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해설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설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안정적인 관광 해설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여러분은 진도의 매력과 가치를 가장 진심으로 전해주는 분들이며, 지역 관광의 얼굴과도 같은 존재다"라며, "해설사분들의 활동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살피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곡성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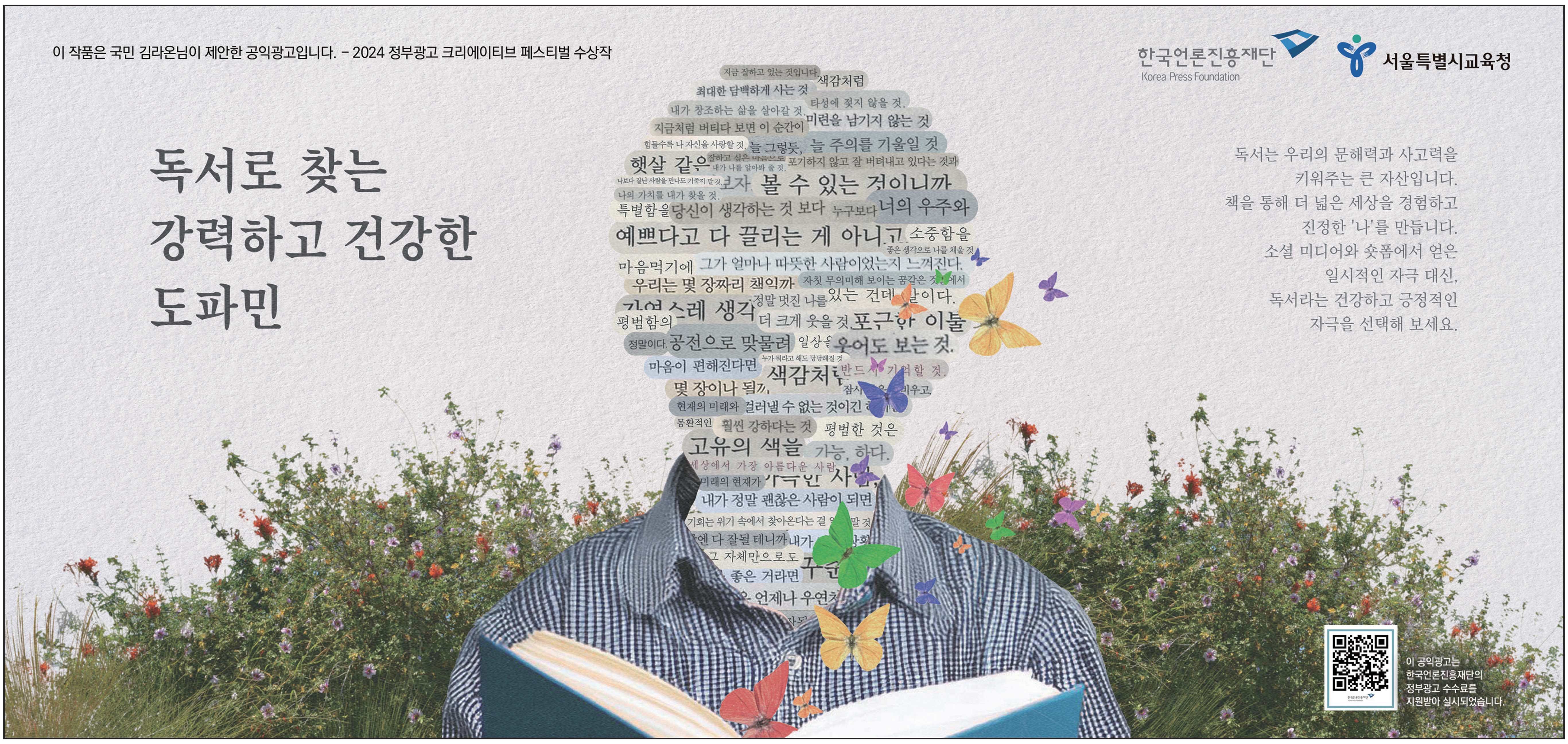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2026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공익활동, 역량 활용, 공동체 사업단, 취업지원 등 4개 유형, 30개 사업단에서 총 1,58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참여 자격은 공익 활동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 역량 활용 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가능), 공동체 사업단 및 취업 지원은 60세 이상이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등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타 일자리 사업 2개 이상 참여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곡성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곡성군새마을회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보다 177명이 증가한 규모로 문화유산 지킴이, 온동네 초등돌봄,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지역사회 방역 활동 등 4개 신규 사업이 신설됐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년 인구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이정수 기자